

학살의 기록...오월 광주와 베트남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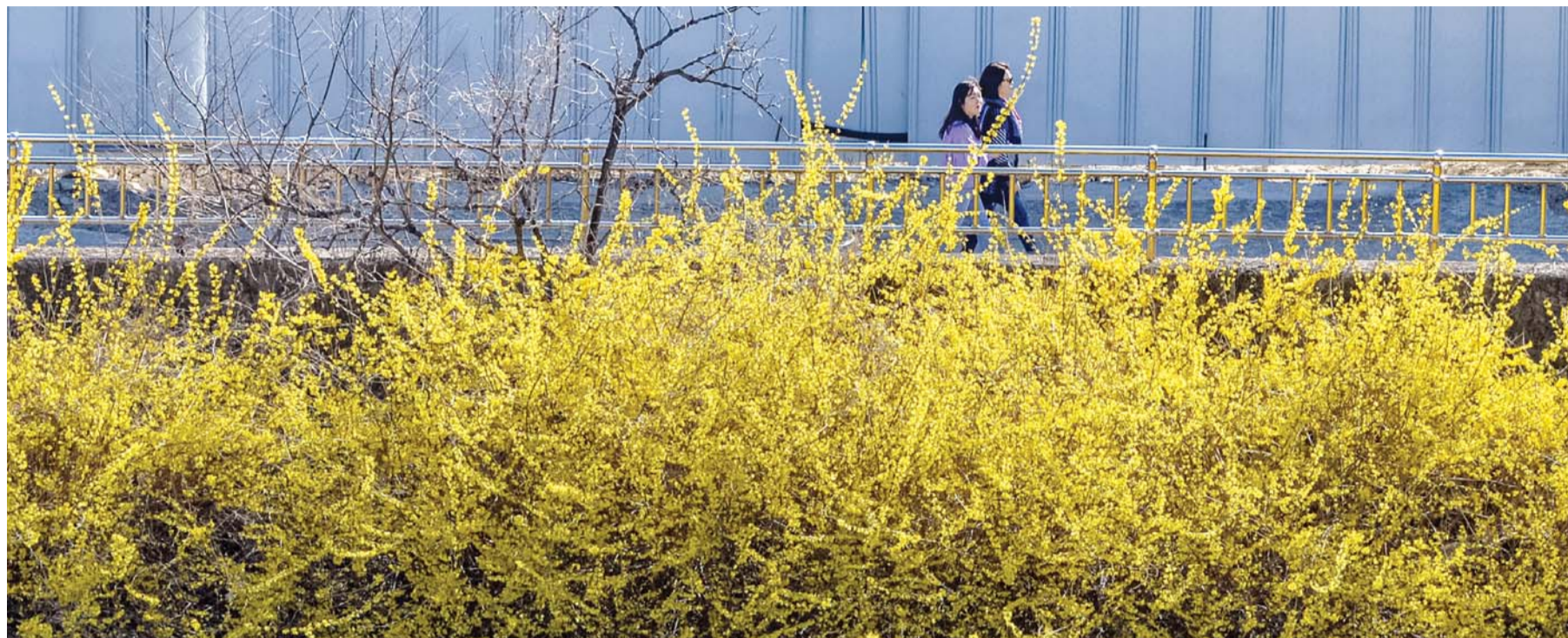
4월 3~30일 5·18기념센터서
‘한마을 이야기-풍나·풍넛’ 전
“광주는 한국판 미라이 학살”
가해의 역사 성찰·아픔 위로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민간인 학살을 기록한 고경태 기록전 ‘한마을 이야기-풍나·풍넛’이 광주에서 열린다. 25일 시민단체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한 광주나비’ (이하 광주나비)에 따르면 다음달 3일부터 30일까지 5·18 기념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열리는 기록전은 광주나비와 5·18 기념재단, 성프

란치스코평화센터, 한·베평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인권평화재단이 후원한다. 이번 기록전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주둔지였던 광남성 풍나·풍넛마을의 학살 50주기를 기억하고 가해의 역사를 성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 해병 제3상륙전부대 소속 본(J. Vaughn)상병의 1968년 학살 당시 사진과 사진속 베트남 풍나·풍넛마을의 희생자와 유가족의 이야기로 구성됐다. 풍나·풍넛 학살은 미군 조사보고서가 2000년 기밀 해제되면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기록전은 2017년 서울을 시작으로 베트남 파병의 출항지였던 부산, 노근리 학살의 아픔을 안고 있는 청주, 4·3 사건이 일

어난 제주를 거쳐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광주에서 진행된다. 기록전 기획자인 서해성씨는 “풍나·풍넛은 한 마을이었고 광주는 남도의 큰 도시였다. 학살은 잊는 만큼 증폭된다”며 “이 전시는 망각과 싸워온 한 기록자의 투쟁이자 성찰”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공개된 미 국방정보국 비밀문서는 베트남에서 광주로 이어진 학살과 폭력의 고리를 증명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광주에서의 가혹한 대응은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신군부 지휘부가 베트남에서 실전경험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광주시민은 베트남이었다’, ‘광주는 한국판 미라이 학살(68년 베트남 미라이에서 504명의 민간

인이 미군에 의해 학살된 사건)’이라고 적혀있다. 다음달 3일 열리는 오프행사에는 풍나·풍넛 사건 당시 8살의 어린나이에 어머니와 동생 등 가족 5명을 잃고 큰 부상을 당한 응우옌티탄과 하미마을 응우옌티탄(동명인인) 등 피해자들이 참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풍나·풍넛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20년간 추적해온 고경태 한베평화재단 이사는 “2000년 풍나·풍넛 사진을 처음 입수했을 때 대학 시절 보았던 광주의 사진들을 떠올렸다”면서 “기록전을 통해 광주시민들과 베트남인들이 마음을 나누고 손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천변에 활짝 핀 샛노란 봄. 25일, 광주 북구 임동 광주천변에 피어난 개나리 사이로 행인들이 산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법원, 미쓰비시 국내자산 압류 결정...강제집행 절차 개시

상표권 2건·특허권 6건 압류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국내 자산에 대한 재산 압류 등 법적 강제집행 절차가 결정됐다. 2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전지방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 중공업은 해당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대해서는 이전이나 양도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 4

명이 신청한 압류채권액은 총 8억400여만 원이다. 지난해 11월 29일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지난 2월 15일 일부 소송 원고들이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를 방문해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고, 관련 계획을 재차 통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측은 시민모임 등의 교섭 요청에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시민모임과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 측의 자산

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특허청이 세종시에 있는 점을 들어 대전지방법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중배상 판결과 관련해 대전지법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재산 압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대전지법의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고, 원고 측에 의한 압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남구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공사현장 등 37곳 특별점검

광주시 남구가 잦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봄철에 대비해 지역내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25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5월 3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25곳과 대기배출 사업장 12곳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규모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25곳으로 주로 대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장이다. 남구는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작업 현장과 주변 도로에 반복적으로 물을 뿌리는 등 사업장에서 행하고 있는 조치 여부를 점검한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9
해질녘 18:48
달 뜨기 --:--
달 지기 10:02

다시 찾아온 '미세먼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미세먼지 농도 높겠다.

광주	맑음	5/20	보성	맑음	3/19
목포	맑음	7/16	순천	맑음	5/21
여수	맑음	7/19	영광	맑음	5/17
나주	맑음	2/20	진도	맑음	6/17
완도	맑음	8/19	전주	맑음	6/18
구례	맑음	1/20	군산	맑음	6/16
강진	맑음	3/19	남원	맑음	2/19
해남	맑음	3/17	흑산도	맑음	8/16
장성	맑음	2/19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남서~서	0.5	남~남서	0.5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5	남~남서	0.5~1.5
남해 앞바다	남서~서	0.5	남서~서	0.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서~북서	0.5~1.0	남서~서	0.5~1.0

◇ 생활지수

보통
뇌졸중
보통
감기
나쁨
미세먼지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0:56	23:05	05:56	17:57
여수	06:26	18:25	00:26	12:27

◇ 주간 날씨

27(수)	28(목)	29(금)	30(토)	31(일)	4/1(월)	2(화)
☀	☀	☁	☀	☀	☁	☀
7/21	7/18	6/14	4/14	4/14	5/16	5/17

북구, 초등생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연제큰꿈' 개소

광주시 북구는 “오는 28일 연제동에 맞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보편적 아동 복지 실현을 위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연제큰꿈’을 개소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에서 첫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설 설치비 5000만원의 국·시비를 지원받아 추진됐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6세부터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음식만들기·문화체험 등 돌봄·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등·하원 지원, 간식, 돌봄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기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아동별 일정에 따라 상시돌봄과 일시(긴급) 돌봄이 가능하다. /김용희 기자 kimyh@

결핵 진단 도말검사 대신 'Xpert 검사' 필요

전남대병원 기승정 교수 논문
전남대병원 의료진이 결핵퇴치를 위해 초기 검진 때 기존의 도말검사 대신 검진 성능이 뛰어난 자동화 분자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전남대병원 진단검사 의학과 기승정(사진) 교수가 지난 3년간(2014~2016년) 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 의회결핵 의심 환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분석한 논문에서 제기됐다. 이 논문은 ‘결핵 중위험 지역에서 현미

경 향산균 도말 검사의 대안으로 써 Xpert 결핵/리팜핀내성 검사(제1저자이현승 전문의, 교신저자 기승정 교수) 라는 제목으로 최근 세계 최고의 호흡기학술지인 ‘미국 호흡기 및 중환자 의학지’에 게재돼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았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제품

LG ESS 삼성SDI SAMSUNG

ESS · 설계 · 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ta.go.kr>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사(가) 기준치 50 부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산업부 장관 4개 단체장(광주·전남·전라·제주) 에너지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
- 에너지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 지자체, 에너지산업 특별조례 제정 추진
- 시군에 예산지원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규모) 추진 가속화에 공동 노력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소 | 순천시 중영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